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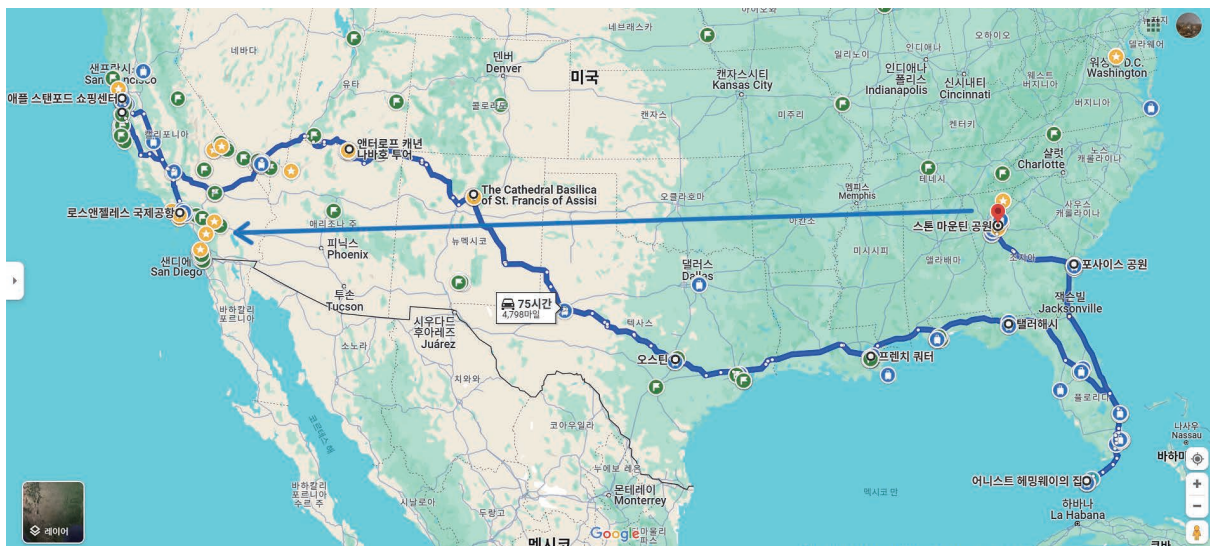
중년에 떠나는 미국 남부 로드트립 1

박형일 경희사이버대학교 IT디자인융합학부 겸임교수 / 前 YTN IT시스템팀 부국장

이번 미국 남부 여행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아름다운 자연과 활기찬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한 달간의 여정이었다.
경로는 미국 서부를 시작으로 동남부에서 마무리되는 총 6,165mile(9,922km)의 로드트립(Road Trip, 장거리 자동차 여행)으로 계획했다.



캘리포니아(LA, 산호세) - 네바다(라스베이거스) - 애리조나(모뉴먼트밸리) - 뉴멕시코(산타페) - 텍사스(오스틴, 휴스턴) - 루이지애나(뉴올리언스) - 플로리다(올랜드, 마이애미) - 조지아(애틀랜타) - (LA 에어버스 Return) - 캘리포니아(샌디에이고)



전체 여행 루트 (LA ~ 남부 도시들 ~ 애틀랜타 렌터카 반납, LA 귀환, 샌디에이고)



📍 여행 첫날 - LA(Los Angeles) 도착과 산호세
(San Jose)로 이동, 4월 9일

LA 주요 관광지와 식당 : 할리우드 거리, 그리피스 천문
대, 산타 모니카 해변, 베니스 해변, 북창동 순두부, 코리안
BBQ 등



렌터카를 픽업하고 LA 북창동 순두부 식사

한국을 떠나 미국(4/9, 오전 10시)에 도착하자마자 LA
공항에서 예약한 렌터카를 빌리고 현지에서 물품과 먹
을거리를 사서 산호세 중간 경유지로 향했다. 시차 적응
과 피곤함을 이겨내며 실리콘밸리로 가는 중간 콜링가
에 6시 반경 도착하여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맥주
를 마시며 첫날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에피소드 1 렌터카 픽업 : 여행 중 말썽이 생기면 진짜 곤
란하기 때문에 시동을 켜고 엔진 소리에 이상이 없는지,
엔진 오일양 등을 체크하며 렌터카를 신중히 골랐다. 새
차가 안 된 지저분한 플로리다 변호판의 차를 픽업했으
나 여행 내내 튼튼했다.

에피소드 2 현지 적응 : 첫날 숙소 근처 Denny's에서 저
녁 식사 중 연인들의 말싸움이 있었고 커다란 권총을
휴대한 경찰이 왔다 갔다 한다(후덜덜, 첫날부터 긴장되
었다).

📍 산호세(San Jose), 팰로앨토(Palo Alto) 여행,
4월 10일

팰로앨토 주변 관광지 : 스탠퍼드 대학교, 스탠퍼드 쇼핑
센터, 다운타운, 팰로앨토 등

콜링가에서 일찍 출발하여 산호세에 도착해서 애플 스토어, 구글플렉스, 스탠퍼드 대학 등을 방문하며 십수 년 전 방문했을 때의 추억을 회상했다. 구글플렉스를 방문했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원하는 만큼 충분히 즐기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은 여러 번 방문했던 곳이라 이번 계획에서 여행은 제외되었다. 매우 전통 있는 예쁜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는 근처에 스토리지 가상화 출장 교육으로 2007년 처음 왔었다. 최근에 후버 타워는 \$5를 내면 팰로앨토의 전경을 올라가서 볼 수 있다. 후버 타워에는 안내하는 할아버지가 수십 년 된 역사를 너스레 떠든다. 나이 들면 연륜에 쌓인 인생 얘기로 말 많은 건 동서양이 비슷한 것 같다.



팰로앨토 애플스토어 내부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타워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타워를 배경으로



후버 타워에서 보이는 전경들

📍 샌타크루즈(Santa Cruz), 페블비치(Pebble Beach), 빅서(Big Sur) 여행, 4월 11일

빅서와 페블비치 주변 관광지 : 빅스비 크릭 브리지, 맥웨이 폭포, 페블비치의 17마일 드라이브,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 등

시차 부적응으로 새벽에 깨어나서 한국, 미국 주식시장을 모니터링하다가 잠들었다. 싸구려 모텔에서 이른 체크아웃하고 서둘러 빅서로 향했다. 빅서로 향하는 중간에 샌타크루즈에서 커피 한잔과 급한 일을 해결하고 샌타크루즈 해변의 보드워크(미국판 월미도 놀이동산)를 구경했다.

1번 해안도로의 명물 빅스비 브리지를 향했으나 중간에 최근 폭우로 인한 도로유실로 도로가 폐쇄되어 근처의 페블비치와 17Miles Dr.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에피소드 1 샌타크루즈 보드워크 해변 주차장이 Day parking \$15과 Hour parking 표시가 있길래, 1시간 하면 얼마 안 되겠지하고 50분 만에 도착해서 출차를 하려고 하는데, hour parking 계산 버튼이 동작하지 않아서 day parking 비용 \$15를 지불했다. 아깝게 점심 햄버거 값 2만 원을 날렸다.

에피소드 2 페블비치와 17Miles Dr.는 아름답다. 그러나 동해의 촛대바위와 제주도 해안드라이브 코스 비슷한 아기자기한 느낌만 있어서 조금 아쉽다. 유명한 페블비치 내의 골프장을 구경하러 들어가다가 숙박자이거나 거주자가 아니라고 쫓겨났다.



빅서 1번 해안도로



빅서 1번 도로 해안가 풍경



페블비치 해안가



📍 라스베이거스(Las Vegas) 가는 길 - 바스토(Barstow), 4월 12일

산타클라라에서 7시간 걸려서 밤늦게 바스토에 도착하였다. 밤이 늦어져서 라스베이거스 가는 길에 바스토 Days Inn에 머물며 라스베이거스까지 갈 여정을 챙겼다. 영화에서 본 듯한 서부의 작은 도시는 밤에는 매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반가운 방송업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사뭇 설레었다.

📍 라스베이거스 NAB Show 2024 참관, 4월 13일~15일

라스베이거스 주변 관광지 : 라스베이거스 호텔 엔터테인먼트와 카지노, 후버 댐, 레드 록 캐니언, 밸리 오브 파이어 주립공원 등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하여 NAB 컨벤션 센터를 방문해 최신 기술과 솔루션들을 접했다. 2019년 마지막으로 NAB를 참관했었는데, 올해는 6만여 명이 참관했다고 하니 규모가 그때보다 많이 작아졌다. 방송장비 기술보다는 IT & AI 기술로 대부분 변화되어 가고 있다. 클라우드, MS, AWS, TVU 클라우드 미디어 허브, AI 기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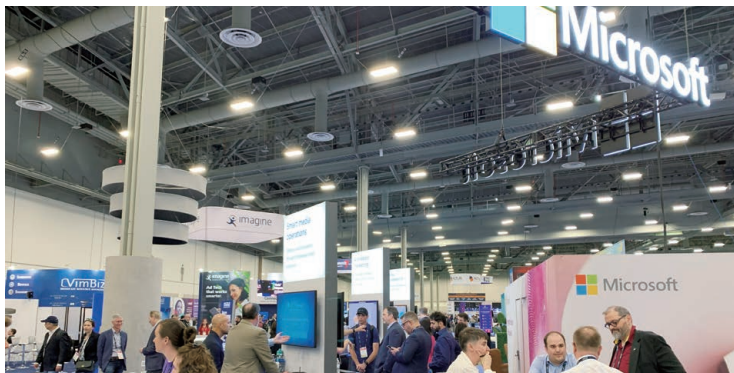


NAB Show 2024 참관

을 활용한 수익화(Monetization) 솔루션 등을 주로 관심 있게 보았다. South hall에서는 기존의 Baseband와 MAM 솔루션들, Baseband의 IP 솔루션들이 주로 전시되었다. IP 솔루션 중에 지연이 존재할 수 있는 압축 IP 솔루션 방식은, 중규모의 방송사가 도입할 경우 컴퓨팅 리소스를 상당히 절감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홀을 이동할 때는 땅 밑의 터널로 이동하는 베가스(테슬라) 루프를 주로 공짜로 활용했고, 오후에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쇼핑을 즐겼다.

에피소드 (스피어 방문) : 15일 저녁 9시 30분 마지막으로 보러 갔는데, 주말에 공연 준비로 폐쇄한다고 했다(낮에 스피어 주변 Self parking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알아봤



NAB Show 2024 참관

어야 했는데 몰랐다). 하루에 유지 관리비용만 십수억씩 손해 볼 것 같은데, 주말 공연이 뽕뽕한 스폰서인 듯하다 (나중에 TV를 통해 알고 보니 유명한 Rock 그룹의 공연이 있었다). 여기서 깨달은 것은 해외 나오면 코끼리 다리 더듬듯이 세상을 본다라는 것이다.

📍 페이지(Page), 홀슈밴드(Horseshoe Bend), 4월 16일

Page 주변 관광지 : 홀슈밴드, 글렌 캐니언 댐, 모뉴먼트 밸리, 포 포인트 모뉴먼트, 엔터로프 캐년 등

홀슈밴드와 엔터로프 캐년을 방문하기로 하고 뉴멕시코 산타페로 이동하기 위해 아침 일찍 라스베이거스를 떠난다. 라스베이거스에서 6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야 한다. 홀슈밴드를 들렀다가 엔터로프 캐년으로 갔다. 엔터로프 캐년은 16:00 이후는 늦어져서 입장이 안 되어 PAGE의 근처 숙소로 이동해서 쉬고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에피소드 라스베이거스를 나와서 홀슈밴드로 가는 길에 과속으로 경찰에게 걸렸다. 뒤에 픽업트럭이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앞차가 너무 속도를 줄이길래, Passing 허용구간에서 속도를 내서 추월했다. 바로 뒤의 픽업트



Vegas(Tesla) loop



Sphere



Vegas 거리



사이버 트럭



홀슈밴드

력이 경광등을 번쩍이면서 따라붙는다.(헉! 경찰이다). 간이 콩알만 해져서 차를 갓길로 세우고 미국 경찰 대응 교본대로 행동했다. 흑인 여경관이 다가와서 55mph 구간을 65mph로 달렸다고 규정 위반이라고 한다. 미안한데 South Korea에서 왔고 제한속도 규정을 깜빡했다고 했다. 경찰이 Insurance Card를 달라고 해서 그런 거 없고 렌터카 영수증을 주었다. 그거 말고 서랍 열어보면 있다고 한다. Insurance Card(자동차 등록증)가 거기 있는 줄 나도 처음 알았다(^^). 경찰차로 가서 한참을 조사하더니 다시 왔다. 다행히 (범칙금)티켓 발부 없이 경고를 받았다. 고맙다고 bye bye 손까지 흔들어주면서 보내고 잠깐 뛰는 가슴을 달래고 다시 홀슈밴드로 출발했다.

📍 모뉴먼트 밸리(Monument Valley) ~ 산타페 (Santa Fe), 4월 17일

아침 일찍 Page(홀슈밴드)의 숙소를 나와서 약 2시간 만에 비현실적인 공간들이 연출되는 모뉴먼트 밸리에 도착했다. 모뉴먼트 밸리에 방문하려면 애리조나주에서 유타주를 잠시 들른다. 다른 주를 넘어갈 때는 경찰들이 많아 조심해야 한다. 모뉴먼트 밸리를 보고 커다란 햄버거와 감튀로 점심을 해결하고 광활한 서부를 달리며 앨버커키에서 산타페까지의 풍경을 즐기며 7시간을 달려서 산타페 숙소에 도달했다.

에피소드 산타페를 1시간 정도 앞두고, 중간에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들어설 때 교통량이 갑자기 많아지고 교통 신호등이 고장 나서 Police 차량 여러 대가 감시/통제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 두 번째 위기가 온 것 같아서 살짝 겁을 먹었다. 비좁은 대도시 앨버커키를 겨우 빠져 나와서 산타페에 늦은 시간에 도착했다. 숙소 도착이 너무 늦어져서 식당들이 문을 닫았고 빨래를 해야 하는데 Coin Laundry도 문을 닫았다. 다행히 이 도시는 걸어서 다니기에도 안전하다고 해서 근처 홀푸드 식품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모뉴먼트 밸리 풍경



글렌 캐년 댐



모뉴먼트 밸리에서 한 컷

📍 뉴멕시코 산타페(New Mexico Santa Fe), 4월 18일

산타페 주요 볼거리 : 산타페 플라자, 로레토 성당, 조지아 오키프 박물관, 산 미겔 교회, 미드타운 비올레타, Canyon Road, 반들리에 국립 기념물, 카세 데 에스파뇰, 산타페 철도 공원 등

뉴멕시코주 산타페는 예술인 거리가 있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였다. 오전에 부지런히 산타페의 캐니언 거리, 로레토 성당, 산타페 플라자들을 구경한 후 텍사스의 오스틴으로 향했다.



산타페 Francis 성당



캐니언 거리



산타페 플라자 거리

📍 텍사스 오스틴(Texas Austin), 4월 19일

미들랜드 주요 관광지 : 조지 W. 부시 생가 박물관, 페미언 베이신 석유 박물관

오스틴 주요 관광지 : 텍사스주 의사당, Barton Springs Pool, Zilker Park, Lady Bird Lake, South Congress Avenue, 본넬 산 콜로라도강 전경

산타페에서 오스틴으로 향하는 거리는 11시간 운전해야 해서 중간에 미들랜드에서 하루 밤을 쉬어야 했다. 산타페를 떠나 사막을 횡단하는 운전만 9시간하고 미들랜드 숙소에 도착하니 밤이 어둑어둑하다.

텍사스에 접어들니 곳곳에서 텍사스워터를 뿜느라 냄새가 엄청 심하다. 뉴멕시코에서 텍사스로 넘어오자 기름 왕국답게 도로포장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 오늘도 코인 빨래방 갈 새가 없어서 월마트에 들러서 속옷을 구입했다. 미들랜드 구경은 패스하고 오스틴으로 이동하는 길에

본넬 산에서 콜로라도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처음 지어졌을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7대 건물 중 하나인 텍사스 의회를 방문해 셀프 투어를 즐겼다. 며칠 전 한국도 국회의원선거가 있었고 모두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경쟁한 것을 생각하니 텍사스 의회 투어가 사뭇 새로운 느낌이다.



오스틴 텍사스주 의사당

오스틴, 콜로라도강, 본넬 산 풍경





텍사스주 의회 내부



텍사스주 의회에서 한 컷

📍 휴스턴(Houston), 4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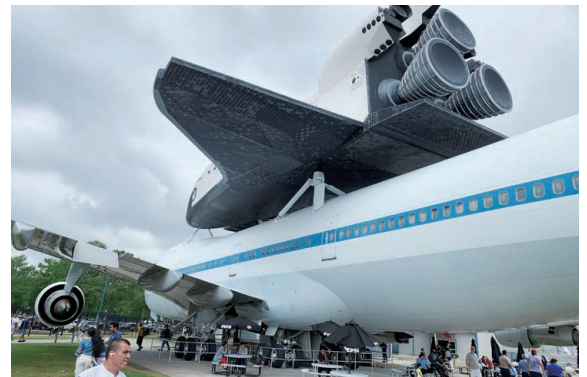
휴스턴 주요 관광지 : 스페이스 센터, 휴스턴 미술관, Hermann Park, 휴스턴 자연과학 박물관, Minute Maid Park, Buffalo Bayou Park 등

아침 일찍, 오스틴 다운타운을 드라이브로 투어하고 2시간 남짓 거리의 휴스턴으로 향했다. 휴스턴에서는 NASA의 스페이스 센터를 방문하였다. 아이들 교육용으로 만든 듯한 느낌들은 많았지만 50, 60년 전 이런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에 새삼 놀라움을 느낀다. 최근의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서 만든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 Space-X도 전시되어 있었다.

에피소드 NASA 스페이스 센터를 나와서 근처 아시안 뷔페에서 한식으로 늦은 점심을 배불리 먹고 빨래방에 들러서 열흘간의 속옷을 빨래했다. 저렴한 \$2.75에 빨래 잘하고, 건조기에서 코인 두 개로 건조했더니 일부분이 안 말라서 호텔에서 드라이기로 전부 다시 건조하느라 고생했다.



지면 관계상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남은 일정에 대한 '미국 남부 로드트립'은 9월호에 이어진다. 📖



NASA 스페이스 센터 외부



NASA 스페이스 센터 내부



스페이스X